

심미적 이성애의 의지, '척도' 찾기의 현상학

민음사 펴냄 '김우창전집' 전5권

우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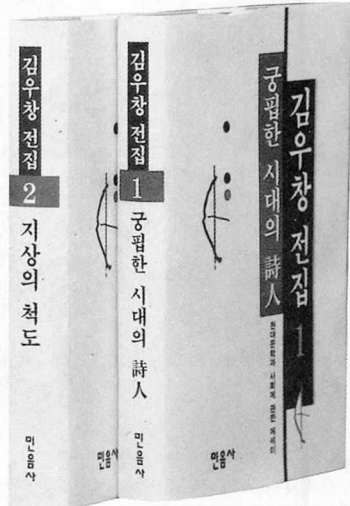
문학평론가·건양대학교수

문학은 심미적 언어를 통해 끊임없이 세계와 대화하고 교섭한다. 그것은 사랑의 형태일 수도 있고, 싸움의 형태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예의 대화는 일단 있는 구체적 현실을 지각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 연후에야 가능한 어떤 것이다. 이같은 대화 내용은 형식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해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된다. 이렇게 형성된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어쩌면 이중적인 대화를 통한 모순된 균형을 찾아나가는 고단한 작업인지도 모른다. 작가나 시인이 세계 지각·해석·표현 양상을 하나의 새롭고 구체적인 세계로 상정해 놓고, 그것과 적극적으로 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작가가 해석하고 표현한 세계상을 읽는 동시에 작가 이전의 원세계상을 비평가 나름대로 읽어 작가 및 세계와 동시에 대결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대단한 '비평 의지'를 요구한다.

진정한 인문주의자의 탁월한 에세이들

우리 시대의 중심적인 비평가인 김우창은 남다른 비평 의지를 지닌 분임에 틀림없다. 그의 비평문은 독해에 필요한 고도의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독해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의 날카로움에서도 풍요한 성찰과 해석의 깊이는 그 자체가 비평의 매혹으로 여겨지기에 족하다. 하여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그와의 고단한 대화를 중단할 수 없었던 터이다.

1966년 「창작과 비평」에 「감성과 비평」을 발표하면서 비평 활동을 시작한 그가 이번엔 다섯 권으로 된 방대한 전집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궁핍한 시대의 시인」(1), 「지상의 척도」(2), 「시인의 보석」(3), 「법 없는 길」(4), 「이성적 사회를 향하여」(5) 등 다섯 권이 그것인데, 이중 1,2권은 1977년과 1981년에 냈던 것을 다시 낸 것이고, 나머지 세 권은 80년대 이후의 비평 작업을 정리한 것이다.) 부담스럽고 버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의 전집 출간은, 무엇보다도 우리 비평사 혹은 지성사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첫 비평집인 「궁핍한 시대의 시인」을 출간할 때부터 야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부제 「현대문학과 사회에 관한 에세이」에 걸맞게 그의 비평 전집은 문학과 미학과 사회 정치에 관한 총체적인 진단과 모색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썼던 박사학위 논문 제목(「시와 문화와 정치」) 그대로, 그의 비평적 관심은 시와 미와 정치라는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요소의 본질과 의미 및 관계를 비판적으로 밝히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은 그것을 통해 “사람다움의 깊이”에 다가가고, 또 “진정한 전체성”을 구성해내는 이성적 담론 체계를 형성하려는 전략의 강화 노력이었다는 것이다. 일찍이 첫 평론집 서문에서 그가 “아무리 언어의 무력함에 절망한다고 하여도, 대화와 설득에 의한 삶의 확대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말은 무엇에 쓸 것인가?”라고 썼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문주의 정신에 입각한 그의 비평 의지에 경의를 표했거니와, 오늘에 와서 집대성된 그의 전집을 보면서 그것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김우창의 비평 작업은 앞서 말한 세 요소의 구성적 관계에 대한 복잡다단한 성찰로 일관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그의 비평적 관심이 '시' 쪽에서 '정치' 쪽으로 이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행 경로를 따라 굳이 구분하자면, 그의 비평은 크게 문학론, 예술론, 정치론 등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어느 쪽이나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늘상 “구체적 보편성”의 추구였으며, 그 “척도” 찾기에 다름아니었다.

먼저 그의 대표적인 문학론으로는 초기에 집필한 「일제하의 작가의 상황」, 「한국시와 형이상—하나의 관점: 최남선에서 서정주까지」, 「한국 현대소설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현대문학사의 이성적인 체계화에 적잖이 기여한 비평문들이다. “하나의 작품의 전체성은 하나의 삶의 전체성, 서로 한데 어

울러 살고 있는 여러 사람의 다양하면서도 통일되어 있는 전체성, 또 삶 전체의 전체성에 이어진다”는 전체 아래, 구체적인 작가 시인의 작품을 사회 역사와 맥락지으면서 역동적인 문학 위상학을 정립한 노작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우창은 한용운, 서정주, 신동엽, 김수영, 조태일, 정현중, 황동규, 김광규, 최승호 등의 시인과 염상섭, 안수길, 최인훈, 이문구, 황석영 등을 논하면서 ‘시와 정치’의 맥락을 즐기차게 잡아왔다.

예술론으로는 「예술과 삶」, 「예술과 초월적 차원」, 「예술형식의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등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거니와, 대부분 예술과 인간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천착한 글들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이란 삶의 전체적인 변증법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하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산물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술은 삶의 전체에, 그것의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욕망과 현실의 전체적인 변증법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불가결한, 그것을 깊고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형성적 힘이 될 수 있다.”(「예술과 삶」)

심미적 이성으로 삶의 전체성 추구

그의 예술론은 점차 무르익어 문화론으로 승화된다. 예술과 문화에 대한 그의 명상과 철학적 사유는 90년대 들어 「국제공항: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에 대한 명상」, 「심미적 이성—오늘을 생각하기 위한 노트」 등의 글에서 김우창다움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성의 비판력과 균형감각을 시종 견지해온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소비적 욕망의 놀이 공간인 국제공항에서 “이상적 세계는 욕망이라는 대상 관계에 있어서도, 소비적, 실용적, 심미적, 정신적 면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유를 이끌어낸다. 또한 사회와 역사의 이해를 위한 근본적 기제를 다시 생각해 본 「심미적 이성」에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들의 주체작용을 강조하며, 그 원리로 메트로폴티를 빌어 ‘심미적 이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심미적 이성이란 “유동적인 현실에 밀착하여 그것을 이성의 질서 속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한 원리”이다. 현실을 놓치지 않으면서 구체적 보편성으로 이를 수 있게 하는 원리로서 내세운 이 ‘심미적 이성’이야말로 최근 김우창의 비평적 중심 화두가 아닐까 싶다.

또 그의 비평 의지의 요체는 바로 이 심미적 이성애의 의지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우창의 정치론은 주로 5권 「이성적 사회를 향하여—사회와 정치에 관한 에세이」에 묶여져 있다. 「내면적 인간과 정치」라는 서문에서도 알 수 있듯, 그의 정치관은 사람의 삶이 보다 너그러워지는 것, 말하자면 인간해방의 진정한 상태가 구현된 이성적 사회를 지향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억압과 파행으로 치달아온 7,80년대의 정치 상황 속에서 그가 심각하게 우려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성의 훼손이었다. 그리고 그가 추구해 온 것은 진정한 이성의 회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성의 비판성과 역사적 동력에 입각해 그는 이성의 진리치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인간다움에 대한 요구, 사람다움의 깊이를 넉넉하게 확보하고자 했던 터이다. 진정한 이성애에 의해 삶과 역사와 문학 예술이 동시에 변증법적으로 지양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논리의 자장 안에서 그의 비평정신과 비평언어는 더욱 소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김우창의 비평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문명비평적이다. 국부적인 문학비평을 몇 단계 뛰어넘은 자리에 놓여 있다. 문학적 예술적 감수성과 해석안, 철학적 사유와 분석·체계화, 사회문화적·정치적 문제 인식과 지혜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 그의 비평 전집은 이땅이 낳은 고도의 인문주의자, 진정한 이성주의자에 의한 ‘심미적 이성’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비평은 진정한 이성이 속절없이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우리 지식사회 내지 문화풍토에서 볼 때 매우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비평가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진실한 인간다움에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의 비평은 매우 의미있는 버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그를 버리로 삼을 수 있는 이들의 차례이다.